

● 해외과학 동정

▽데모크리투스의 부활=기원전 5세기 원자론을 처음 주장한 철학자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이 현대의 나노 과학자들을 흥분시키는 원동력이다. 분자기계와 재조립으로 표현되는 나노기술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80년대 원자현미경(STM)과 원자력현미경(AFM)이 잇따라 발명되면서부터 이들 현미경은 분자와 원자를 관찰할 뿐 아니라 분자를 움직이거나 화학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한번에 한 개씩의 분자만 움직일 수 있어 초보적인 물질 하나를 만드는데도 천문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나노기술이 21세기 인류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동아일보: 99/08/27〉

● 회원사 및 유관기관 동정

한국전력

한국전력 발전부문이 오는 11월 원자력발전사를 포함한 6개의 발전회사로 분리되는등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바뀐다. 한전은 2일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주간자문사인 앤더슨 컨설팅이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한전 발전부문 분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할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수·화력발전소 42개를 5개의 수·화력 발전소로 나누어 묶고 원자력 발전부문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 총 6개의 발전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문화일보: 99/09/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이동 : ▲전문위원 차相訓 ▲안전규제부장 辛元基 ▲안전평가부장 李星圭
▲방사선안전센터장 權奭根

신진메디кс

사무실 이전안내

이전일자 1999년 8월 21일 (토)

새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71 인정빌딩 2층(우 135-080)

전화 : (02) 565-0980 fax (02) 565-0981